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1)

검은 승복 주홍색 가사의 주인공

1980년대. 군사정권의 권위에 대항하며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자 많은 이들이 투사로 변신했다. 불교인들도 많았다. 텔레비전 화면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스님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어느새 검은 승복과 주홍 가사로 우리들의 눈에 익은 스님이 되었다. 진관 스님이다. 본명은 박용모이다. 진관 스님은 지선 스님과 함께 승가의 민주 인사를 대표한다.

진관 스님은 2555(2011)년 현재 학술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의 선종인 조계종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부주조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외에도 지관 스님은 시인이자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다. 그림도 그리는 예술인이다. 이 모든 부분에 전문가 수준의 작품들을 그려내곤 한다. 이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그 가운데 1980-90년대 민주화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전이 있었다. 현재는 '인권'이라는 화두를 새기며 불교계를 수호하는 금강역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진관 스님은 전라북도의 감제 어딘가를 가리키며 자신의 고향이라고 한다. 그의 구술을 통해 민주화 투사로 아로새겨진 스님의 여정을 따라간다.

“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북) 김제 백산면이라고 하는 그 상리라는 연이 많이 피는 연꽃마을 이에요. 그 연꽃마을에서 태어났

문학소년 진관...서당서 한학 배우며 민족의식 고취시키며 예술성 키워

다 그러는데 그 부모들이 인제 이사를 많이 다녔으니까 거기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버지 고향에서 태어났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곳을 표시하는 민원서류에는 김제 백산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자신의 고향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고 아쉬워한다. 1948년생인 그는 올해로 회갑을 넘겼다. 당시 태어난 해에 이렇듯 이사 다녔다는 부모님 말씀에 진관 스님 자신도 태어난 곳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사 다녔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운수행각이 자연스러운 출가승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니었을까' 하며 그는 자문한다. 초등학교 시절 이미 진관 스님의 미래를 추측하게 한다.

“그 때는 사람들이 사쿠라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뿔뿔으로 바뀌

어졌지만 서도 그래서 우리 꽃이라고 해 가지고 뿔뿔이 그렇게 했는데 그 때는 사쿠라꽃이라는 그 이름도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시를 쓰다보니까 어느 때 시를 쓰다보니까 사람들이 시인이라는 것은 그 고달픈 거다. 그리고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변혁하고 세상 요걸 다른 선생이 또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시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시인이라는 것은 참 조건을 지켜야 되고 그 굴복하지 않아야 되고 막 이런 그 때 그 시인이야기를 내가 그 선생이 어렵잖아 해주는 것을 들으니까는 그때 이윽사 선생이 그 뭐 독립운동하다 어? 가서 막 그 했을 때 변하지 않고 그런 그런 마음을 가져야 시를 쓰는 건데 그렇게 쓸 수 있겠냐?”

문학을 꿈꾸었다기보다 아예 문학소년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진관 스님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선구자의 길도 마치 운명처럼 그 때 정해졌음을 암시한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용모(진관)에게 선생님은 이윽사 시인처럼 독립운동을 하거나 역사에 남을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줬다고 한다. 시인이 고달픈 인생이라는 점을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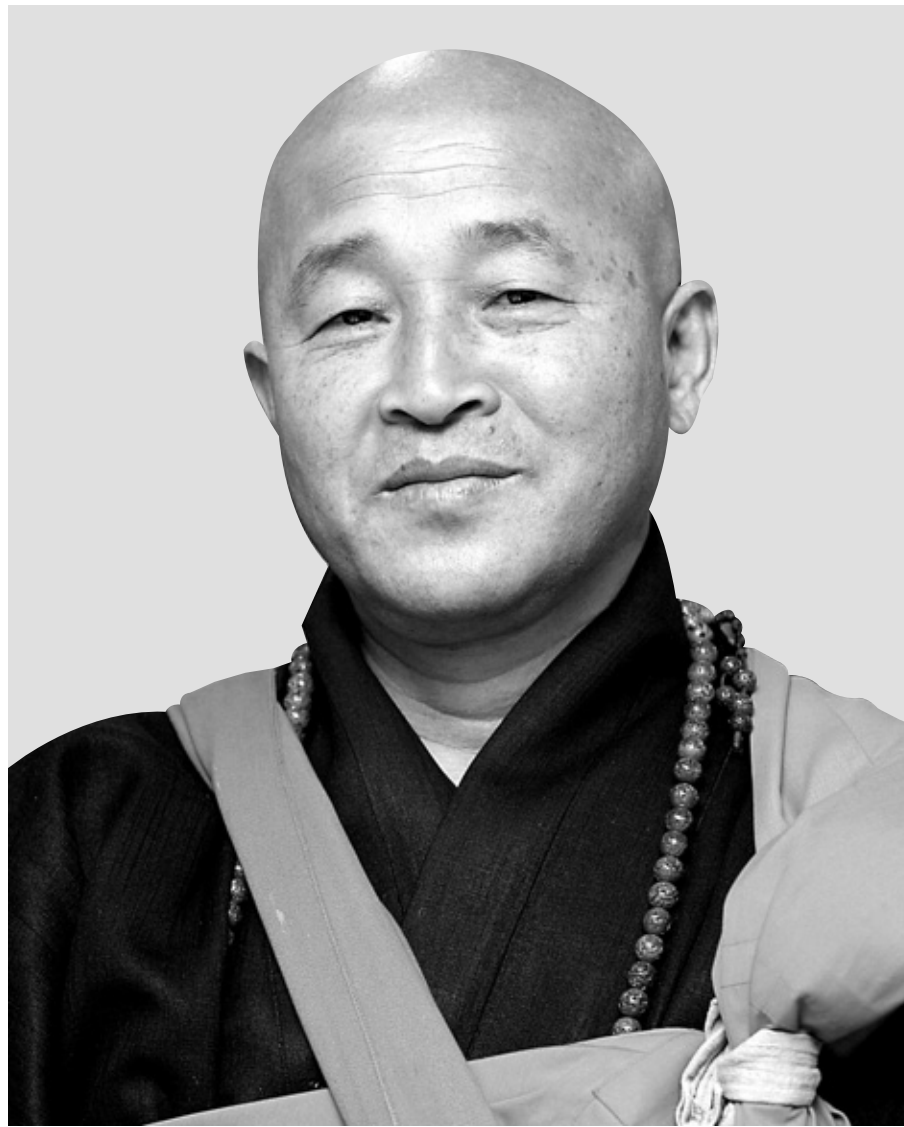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벽보에다가 그림도 붙여있었어. 그림까지 붙여있었는데 그 때 이제 배 그림이야 배. 배를 타고 이렇게 딱 가는 그림인데 아마 그 고동이 탁탁 울리고 가는 연기까지 나는 그 그림이 벽에 붙어있었으니까는 아이들이 전부 와 가지고 “야 그림 잘 그렸다.” 그런 이런 요런 게 이제 딱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시 쓰고 그림 그리고...”

자신이 시인이라고 문학인임을 강조하지만 예술인의 성격이 짙다. 자신도 인정한다. 그러한 기조를 이어 6학년 때도 공부 잘해서 일등 했노라고 솔직한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 생긴 예포소드이다.

“이리 동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생이 목공(6학년)선생인데 에- 학교를 어디로 갈 건가 아 아 나보고는 전주 북중과 전주 북중과 이리 동중이 있는데 동중으로 가라. 그러가지고 원서 써 가지고 가다가 제출 안 해버렸지 이제. 원서 선생 써줘 가지고 내가 가다가 이제”

“원서로 제출하려 가다가 제출 안 해버렸어요. 아 내가 그 중학교 가서 뭐하겠느냐? 나는 음 고전으로 돌아가서 한학을 한 학을 해야되겠다. 한문 그러가지고 한문을 할려고 한문 선생을 찾아가셨어요. 그 한문 선생이 아- 거기서 1년간 1년간 한문선생한테 많은 그 걸 들었어요.”

현재는 익산시로 명칭이 바뀌어 있었는데 전주로 갈 것인가 이리(익산)로 갈 것인가 어린 마음에 고민을 했을 것이다. 진관



어릴 적부터 정치·운동에 관심 권위에 대항하는 자세 일찍 나타나

스님의 구술에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학 입학 후 포기와 동리의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기로 결심한다. 어린 진관은 《맹자》와 《명심보감》 등을 읽고 외우며 한문 선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그 선생은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준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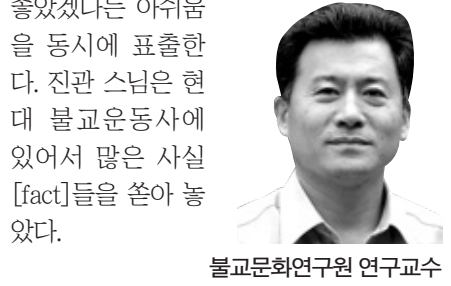
“운수행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사람 이제 국회의원 나오면 벽보 붙여라 다니고 이제 이제 야당이 있었죠. 그 때 지금은 야당인데 벽보 붙여라 다니고 그랬어요. 국회의원 나오고 연설하러 다니고 그러면 그 장소마다 쫓아다녔지 이제. 그 인제 야당이 아니고 야당이니까 인제 반대파에 있는 고런 성향이 있었던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야당파가 아니고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어린아이들이 붙여라 다니잖아 붙여라 다니고 고런 한 기억이 나오네요.”

어릴 적부터 '정치' 혹은 '운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훗날 진관 스님은 연단에서 온 몸으로 제스처를 취하며 연설했다. 액션을 취하는 스님이 특이해 보이지만 깔깔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대는 소리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그 성향은 이미 한문 배우던 시절에 싹트기 시작했다고 솔직한다. 또한 자신은 야당 쪽이었음을 고백한다. 권위에 대항하려는 자세가 일찍부터 나타났다고 한다.

“한학 선생 성함은 인제 잃어버렸고 어 그리고 그 장소가 인제 그 지역에서 한학을 제일 잘 가르친다는 그 한학 선생을 아버지 가 인제 소개를 해 줬거든. 그 인제 아버지 가 소개를 해줘서 거기 갔는데 거기 용지면이라고 김제군 용지면...”

진관 스님은 한학 배우기를 잘 했다고 하지만 또 중학교에 가서 신학문을 배웠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동시에 표출한다. 진관 스님은 현대 불교운동사에 있어서 많은 사실 [fact]들을 쏟아 놓았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형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천인 구제의 생불 에이존(敎尊)

시대와 정면에 맞서 대승불교 내세워

에이존은 누구라도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중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은 출가자로서 다른 사람은 재가자라든가, 또는 비구며 다른 사람은 사미라고 차별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극치이므로 삼가해야만 한다. 스스로 타인보다도 약하고 모자란다는 마음이라면 어찌 사함을 속이고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나는 마음속에 세상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한다.”

이러한 실유불성·동일불성설의 사상에 입각한 그는 인간 구제를 무엇보다도 중시했다. 그의 구제 사상의 특징 가운데는 대비 천제(大悲闡提)의 원이 있다. 그는 “천제의 원을 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세의 모든 보살이 유정 세계의 모든 고통을 소멸해 주는 원을 세우지 않고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고 한다. 이 천제는 살생으로 인하

인간 구제 무엇보다 중시 기도의 힘으로 외적 물리쳐

여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러한 천제를 자신과 동일시한 것이다. 즉, 대비 천제는 대자비심으로 인해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웠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다. 대비 천제로 서만이 아니라 그는 중생 구제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도 가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을 세웠다는 것은 흥법 및 이생(此生)을 위한 불법 실천의 의지는 물론 대승보살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1264년에는 전국 본말사의 승려들이 운집한 가운데 광명진언회를 열었다. 이는 이생의 죄를 멸하고, 후생에는 깨달음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 법요행사는 지금도 계승되어 매년 10월 3-5일 주야에 걸쳐 행해지고 있다. 1245년 에이존은 문수보살이 눈앞에 출현하여 <불성삼마야계탁정(佛性三摩耶戒濯頂)>을 받았다고 한다. 즉 진언과 함께 관정을 받은 것이다. 그 내용은 ‘불성은 본래부터 평등하므로 부처와 일체가 되어 즉신성불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후에 이를 제자에게 물려주면서 “계율은 밀교와 일치하며 일월과 같다”고 부촉했다고 한다. 이는 에이존이 계율과 밀



나라(奈良)의 사이다이전경

교를 불이(不二)의 관계로 본 것이다. 한편으로는 계율은 모든 불자들의 근본행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밀교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모든 중생들이 해탈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자서전인 <감신학정기(感身學正記)>와 계율부흥을 위한 <범망고적문집(梵網古迹文集)>, <표무표장문집(表無表章文集)>, <보살계본 중요(菩薩戒本重要)> 등을 저술하고, 계경(戒經)을 1만7000회에 걸쳐 강론했다. 에이존은 당시의 천황과 상황들 앞에서 이러한 저술에 의거하여 계율을 강석하기도 했다. 이들은 강의에 심취·감동해 대신들과 함께 보살계를 받았으며 사제의 예를 갖추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에이존의 기도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쳤다고 한다. 1281년 몽고군이 일본 정벌을 위해 습격해 올 때, 그가 신전에서 이국(異國)퇴치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병사들이 다치지 않게 동풍(東風)이 일어 병선을 본국으로 보내도록 기도하자마자 사이다이지의 애염명왕좌상(愛染明王坐像)이 손에 쥐고 있던 화살이 큐슈의 앞바다에 날아가 몽고 대장의 가슴을 맞추고, 하카다에서는 큰 바람이 일어 몽고군이 퇴각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가 특격한 밀교 수행자로서도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에이존의 유업을 이은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는 닌쇼(忍性)가 있으며, 한센 병 환자를 위해 일본 최초로 병원을 짓고 이들과 함께 살았다.

무계과계(無戒破戒)의 말법 사상이 중세 신불교의 조상들을 탄생시켰다면, 에이존은 시대와 정면에 맞서서 오히려 대승정인에 바 탕한 계율부흥을 외친 것이다. 아마말로 불법 스스로의 정화력에 의한 것이 아닐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研究 및 受講生 모집

東醫寶鑑 方藥合編. 藥草學

강 의 합 니 다
(스님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한약 효능 안내

기효만령단 (奇效萬靈丹)	고혈압, 중풍, 당뇨병, 관절신경통, 견비통, 요통, 근육통, 골절통, 편경두통, 좌골신경통, 자궁근종, 안면신경마비증, 수족신경마비증, 일체담증, 수족냉각증, 산후풍증, 중이염, 골수염, 고관절염, 말초신경염, 여드름, 치질, 치루, 통풍, 약성피부질환, 소화불량, 양기부족 등
안중산(安中散)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궤양, 궤양성 대장염
창이환(蒼耳丸)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호마산(胡麻散)	백전풍, 백나병, 백반증
익수환(益壽丸)	당뇨, 정력, 빈뇨, 전립선염, 방광염
청보환(淸補丸)	신장풍류, 해수, 천식, 기침, 기관지염, 감기
생강건비탕(生薑健脾湯)	간염, 간경화, 간암, 지방간, 황달
소풍산(消風散)	이명, 보약, 두목, 혼현, 비색, 부인혈풍두양
청심연자음(淸心蓮子音)	심장 신장 기능 강화, 요실금, 오줌소태, 전립선염
신효과부산(神效瓜瓞散)	유방암, 유선염
팔진탕(八珍湯)	임신구토, 임신빈혈
귀비온담천마탕 (歸脾溫膽天麻湯)	현훈(眩暈), 어지러움증, 불면증, 신경쇠약
총명익기탕(聰明益氣湯)	안혼(眼昏), 이명(耳鳴), 이농(耳膿), 정신상해, 식욕증진, 오로질상 허손(五勞七傷 虛損), 간상(肝傷), 치매, 냉누출(冷尿出), 양기부족
항암식품(抗癌食品)	오백산(五白散), 강유탕(熊膽湯)

(참고문헌: 東醫寶鑑)

문의: 慈悲會 02)722-4848 / 010-2538-778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계절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어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성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영풍·반디앤루니스·인터파크·올라딘·에스24에서 구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임 학습서 ◆ · 육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하 권 45만원 · 육사육임사주강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육사육임요진 2011최신판 1권 이상3종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사육임생활강정법 2011정년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육사육임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년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육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회역수 2011정년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년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년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년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공해몽 5만원 이상1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년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6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사육임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년판 1권 5만원 · 육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임 및 각종 오행물 분개 CD프로그램 ◆ · 육사육임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500만원 · 육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육사육임정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정법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년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 · 육사육임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기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편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사육임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중장착) 정가500만원 · 육사육임월정법 전12권 정가120만원 · 육사육임월정법 CD 프로그램 육임일생/당면판판판 정가650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주) 이이 최고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함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주)